

## <시각장애인 생활백서>

- ▣ 연출 및 지도 : 오지나
- ▣ 출연자 : 김한국, 김명원, 강귀화, 이해경, 김월랑, 정유순-사장, 배명식, 배짱이(악사)
- ▣ 등장인물 : 김한국, 김명원, 강귀화, 이해경, 김월랑, 정유순-사장, 배명식, 배짱이(악사)

### ▣ 1. 도 몰랐지

음향- 연주, 마이크-전체 준비-의자 8개

무대 위 공연이 시작되면 의자에 앉아있는 배명식님이 젊을 때 이야기가 한창이다.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한두명씩 입장을 한다.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사람들

배명식 :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누나 오늘도 웃고름 씹어물고

...

(노래를 하다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.) 나도 몰랐지  
내가 시각장애인이 될지... 처음엔 참 힘들었어

이해경 : 아이구 왜 칙칙하게 그런 이야기야 좀 즐거운 이야기 좀 해요

김명원 : 왜? 오늘 아저씨가 뭐? 또 봉창 두들기셨나?

강귀화 : 하하하 명원언니 어쩔 말을 저렇게 재미있게 해.

정유순 : 귀화야 무릎에 앉은 분은 누구?

배명식 : 누가 귀화누님 무릎에 앉았어? 그런 호사를 누리다니

김월랑 : 아! 언니 코로나로 2주 쉬어서 잘 모르겠구나? 이주 전에 새로 온 김한국씨예요

김한국 :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온 김한국입니다

정유순 : 아! 올해 나이가?  
 김한국 : 네 올해 37입니다  
 정유순 : 37? 힘들면 제 무릎에도 앉아 쉬었다 가요  
 배명식 : 요새 젊은사람들은 하체가 영 부실해. 라떼는 말여  
 이해경 : 예 예 어린하실라구요  
 강귀화 : 아저씨! 요샌 라떼는 했다간 끈대소리들어요  
 배명식 : 끈대 끈대는 무슨. 근데 한국이 너 목소리가... 어째 기분이 안  
 좋아? 보인다.  
 김월랑 : 그래 오늘 관차도 안탔지? 왜 늦었어?  
 김한국 : 그게... 말씀드리자면 길어요  
 김명원 : 우리 깜깜이들 남는게 시간이여 말해 봐  
 김한국 : 오늘 아침부터 되는 일이 없더라구요. 보일러를 트는데 왜 찬  
 물이 나오는건지..치약은 바닥에 흘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 
 만져봐도 찾질 못하구... 밥 먹을려고 햇반을 찾는데 다 떨어지고  
 없어서 배도 고프고요  
 강귀화 : 찌찌 아침부터 고난한 행군을 했네 거기다 지금 보니까 웃도  
 잘 못 입고 나온 거 같은데?  
 김한국 : 웃이요? 웃은 제대로 입고 나왔는데... 파랑 셔츠 아니에요?  
 정유순 : 파랑? 아니 예쁜 꽃무늬인데.. 딱 내스타일이야~~  
 이해경 : 아이고 시각장애인 초보자 티 팍팍 나는구만  
 김한국 : 웃을기분이 아닙니다. 정말 이럴때마다 죽고싶다구요  
 배명식 : 예끼 이사람아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는거 아녀. 요즘사람들  
 말끝마다 죽것다 죽것다 하는데 그럼 못 써  
 정유순 :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잖아요. 기운내  
 김월랑 : 그래 뭐 그정도 가지고.. 우리가 맹인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  
 는 팁을 전수해줄테니까 걱정말고  
 김명원 : 슬기로운 맹인생활을 위한 생활백서같은 거지  
 김한국 : 슬기로운 맹인 생활이요  
 이해경 :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잘 들어봐

## ▣ 2. 슬기로운 맹인생활

다들 자리 이동을 한다. 위치를 삼각으로 나누어 이동을 하고 각 구역  
별로 의식주를 담당한다

웃입는거 스마트폰앱  
더 편한건 없을걸  
앱으로 다 물보면 돼  
색깔,스탈 다 말해줘

빨주노초파남보  
(말)깔맞춤한 셔츠에  
청바지나 베지바지 그보다  
더 좋은건 없을걸

혼자도 할수 있는 패션 피플룩  
천만번 더들어도  
기분좋은 말 패션 리더

밀키트간편식배달  
더 편한건 없을걸  
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 
굶는일은 없을거야

손 끝으로 느껴봐  
(말)우리에게 손이 눈인걸  
작은 스킬만 익힌다면  
(말)너도 생활의 달인이 된다니까

혼자서 할수 있는 시각장애인 생활  
열심히 수련하면  
되는 거야 야 너두 할수 있어!

조금만 더 노력하면  
신나는 일 많을걸  
행복하고 신나는 일상  
마음먹기 나름인걸  
힘을 내봐 할수 있어  
야 너두 할수 있어

의

이혜경 : 깔! 깔맞춤이 생명이야.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듣는거 어렵지 않아. 포인트는 넥타이나 모자로. 쉽지?

김월랑 : 앱에 물어보면 칼라랑 어떤 스타일의 옷인지는 설명을 해 준다구. 잘 어울리는 옷은 깔별로 준비해놨

이혜경 : 앞 못본다고 패션을 포기해서는 안돼. 애정하는 옷은 스타일을 외워. 옷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도 방법이야 기하학 무늬외투는 피카소 가디건, 따뜻한 색깔 옷은 파스텔 언니.

김월랑 : 남잔 깔끔하기만 해도 한가지는 먹고 들어가. 그러니 깔끔하고 단정한 헤어 잊지마

## 식

김명원 : 요샌 요리하는거 쉽지. 다 씻어져 나오고 만들어져 나오잖아 포기하지만 아침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이야

강귀화 : 맞아 한두가지 쉽게 할 수 요리를 익혀 두는게 좋아. 그럼. 시작해 볼까? 달걀 프라이부터. 우린 손이 눈이잖아 내가 먹을거니까 괜찮아 식용류 주둥이를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손가락을 지나 흐르게 해.

김명원 : 쉽지?

김한국 : 그럼 컵밥이나 컵라면류를 먹을때는? 물조절 엄청 어려워요

강귀화 : 맞아요 컵라면물붓기도 그렇고 요새 말많은 키오스크도 그렇구요.

김명원 : 맞아 키오스크. 목소리 설명만 있어도 좋을텐데...

## 주

배명식 : 집 번호키 누르는거 어렵지? 스티커를 붙혀 표시해봐 그럼 쉬울거야

정유순 : 요샌 집 보일러도 터치 인터폰도 터치, 현관도 터치, 터치 터치.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노터치 노터치. 느낄수 없는 무용지물

김한국 : 현관 카드키를 놓고 나왔을땐 이럴 땐 어떡해요?

배명식 : 그럴 땐!

다 들 : 그럴 땐.?

배명식 : 방법 없지 여기 저기 눌러서 열어 달라해

다 들 : 에이~~~~

### ▣ 3. 슬기롭지 못한 세상

김한국 :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앞으로 좀 더 슬기롭게  
하루 하루 살아볼게요,

김명원 : 그럼. 아직은 많이 무섭고 발이 안떨어지겠지. 그래도 한발한  
발 딛고 나와야 세상 즐거운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 용기내

이혜경 : 맞아 나도 안보이기 시작할 때 하루 하루 조마조마 했는데 실  
명하고 나니 포기가 되더라 지금은 하루하루 즐겁게가 내 모토야

김월랑 : 그럼 내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겨. 난 매일매일  
천국에 살려고 엄청 노력해.

배명식 : 하 한국이 오늘 엄청 비싼 인생수업 들었네. 한턱 싸

김한국 : 네 정말 그렇네요. 그럼 비싼 수업 들었으니까 점심은 제가  
모실게요.

정유순 : 어찌나 난 오후 손주 하원하고 봐줘야 해서 그만 가야돼 어머  
시간이!

김월랑 : 나도... 오후 빨리 수업이 있어서 점심은 패스

정유순 : 그럼 나랑 같이 나가자

5,6번 먼저 일어서 나간다

배명식 : 그럼 우리가 빠지는 사람들 뭇까지 먹으면 쓰것다

김명원 : 배씨 아저씨도 가시게?

배명식 : 원소리를 그리 쉽하게 해요 당연히 가제. (일어서며)아이고 죽  
것다 죽것어!

김명원 : 명식씨도 요새 젊은이가 맞네 죽것다 죽것다 허는것이

다들 웃으며 일어난다. 다같이 한줄로 서서 이동을 시작하고 한바퀴 돌  
아서는 동안 자리배치가 다시 되고 식당 문이 들어온다. (영상Q-

## 네가지식당 사진(PPT) 식당 문앞에 줄선 사람들

김한국 : 여기 식당이 짜꾸미 맛집이야 점심시간 줄 엄청 길다는데...  
(자세히 보고)오늘은 짧네요  
배명식 : 어 그래 한국이 니가 고생이 많다  
강귀화 : 어... 앞에 많이 준거 같아요 이제 우리 차례네  
사장 :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실까  
김한국 : 저희 6명이요 김한국으로 예약했어요  
사장 : 네 그럼 이 쪽 문앞 쪽에 ... (발견) 아이고 이런 바빠 죽겠는데 시각장애인이야?! 귀찮게.. 손님, 자리가 없네요. 딱 찢리네  
김한국 : 아니 지금 문 앞쪽에 자리 있다고 하신거 아니예요  
사장 : 제가요 아니요 문앞쪽에 자리가 좁아서 못앉는다고 한건데요  
김명원 : 그래요 그럼 좀 더 기다리지 뭐  
사장 : 저 그게 재료가 다 떨어졌네 어쩌나  
배명식 : 이보세요 갑자기 재료가 떨어진다니 말이 돼요?  
사장 : 아니 재료가 그럼 갑자기 떨어지지 예고를 하고 떨어집니까  
김한국 : 사장님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잖아요  
사장 : 뭐가 말이 안돼요. 거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나가

### ▣ 4. 정의는 살아있다

다들 식당밖으로 밀려 쫓겨 난다. 침묵이 흐른다.

김한국 : 뭐... 저런 사람이.. 제가 당장 신고할게요.

배명식 : 관둬라

강귀화 : 왜 관둬 이런건 신고하겠다고 해야지

이혜경 : 그래서 들어가면? 밥이 맛이 있겠어? 어휴 난 싫어 체할거 같아

김명원 : 밥은 됐고 그래도 한소리 해주고 가자. 이런 십팔색 그레이 색같은 인간아 하고

강귀화 : 언니 정말... 대단해요. 이런 상황도 유머로 승화시키다니...

김명원 :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면서 털어내버리는 거지 뭐!  
이혜경 : 이런 일 어디 한두번이야 이런일 있을때마다 상처받기로 치면  
가슴이 남아나겠어?  
강귀화 : 그래서 우리 그냥 가요? 힘 나 배고픈데...

이 때 전화벨이 울린다. 6번 등장

강귀화 : 어? 월랑이 전화다. 여보세요?  
김월랑 : 언니 어디야?  
강귀화 : 우리 식당 앞. 너 오려고? 오지마  
김월랑 : 왜? 식당에서 쫓겨났어? 혹시 네가지 식당 갔어?  
강귀화: 어떻게 알았어? 너 어디 숨어서 우리 지켜보냐?  
김월랑 : 그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. 그게 아니고 누가 동영  
상 올렸어 '이름값 하는 무개념 네가지 식당' 요즘같은 세상에 장  
애인차별이라니 사장님 용감하시네요' 라고  
이혜경 : 세상 참 좋아졌네 역시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살만한 세상  
이야  
김명원 :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네  
배명식 : 아 속이 다 후련하다

이 때,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사장님.

사 장 : 저기... 아깐 내가 미안했어요 들어와서 식사하세요. 제가 그냥  
공짜로.. 식사 드릴테니 제발 이것좀 잘 설명 좀 해줘요  
다 들 : 됐거든요  
배명식 : 공짜라는데... 들어갈까  
다 들 : 어르신!!!

## ▣ 커튼콜

조금만 더 노력하면 신나는 일 많을걸  
행복하고 신나는 일상 마음먹기 나름인걸

힘을 내봐 할수 있어 야 너두 할수 있어